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제27권 제1호 2021 차 례

초빙편집인의 글

딜레마 이론의 수용과 확산, 그리고 전망 / 윤건수 1

기획논문: 딜레마 연구 30주년 기념

딜레마 이론: 체계적 평가와 고찰 / 김태은 11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 / 소영진, 안성민 53

결정의 엇센스, 제4시각:

딜레마 관점에서 본 쿠바 미사일 위기 / 이영철 81

혁신과 규제 사이의 딜레마:

한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다은, 윤건수 107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 김동환, 조수민 139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 / 김창수 159

일반논문

OECD 국가 공무원제도의 기원:

시론적 연구 / 박종민 189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 이진우, 김종예 219

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조홍주 249

딜레마 이론의 수용과 확산, 그리고 전망*

딜레마 이론이 개발되어 학계에 소개된 지 어느새 30년이 되었다. 이론이 갖는 조건 중 하나는 그것이 오랫동안 현실을 분석하는 틀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적 장치들이 학술적으로 보완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딜레마 이론은 좋은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 30여년간 꾸준히 학자들의 관심을 끌며 행정과 정책 현실을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30년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회고해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딜레마 이론을 적용한 논문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참여연구자의 숫자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김태은, 2021).

딜레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조직이나 정책을 이해할 때 배제했던 상충성이나 패러독스 개념들이 성공을 했던 기업들에서 자주 발견되고, 딜레마적 사고가 오히려 실패를 줄이고 혁신을 이끈다”는 현상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종범, 2021). 이런 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1990년 6월 18-19일, 고려대학교의 이종범, 안문석 교수님과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박이일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 후 일년간 8차례의 연구모임을 더 가지며 이론을 개발시켜 나갔고, 그 결과를 1991년 6월 29일 하계행정학회에서 3편의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이종범·안문석·이정준·윤건수), “정책의 비밀 관성과 딜레마”(염재호·박국흠), “딜레마와 형식주의”(박동희·김동환)가 그때 발표된 논문이었다. 발표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된 논문은 1991년 12월에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되었고, 그때부터 딜레마 이론은 공식적으로 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딜레마 이론이 발표되고 나서 첫 10년은 딜레마 이론이 학계에 확산되면서 행정과 정책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분석틀로 수용되는 시기였다. 1994년 6월에 첫 번째 연구서인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이종범 외)”가 출간되었고, 2000년 3월에는 “딜레마와 행정(윤건수 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연구서가 발간

* 이번 기획특집에 게재된 여섯 편의 글은 딜레마 연구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준비하면서 2020년 12월의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8편의 논문 가운데 2편을 기획특집에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2년간 학술회의를 준비하며 토론에 참여한 딜레마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린다. 소중한 기획특집의 기회를 제공해 준 정부학연구에 특히 감사를 드리며, 학술회의와 논문 심사 과정에서 날카로운 논평을 해준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되었다. 학회에서 틈틈이 연구논문들이 발표 되었고, 1997년 6월에는 미국행정학회(ASPA) 학술대회에서 딜레마 이론을 영어로 발표할 기회도 가졌다. 이 시기에 딜레마 연구진이 학계에 던진 메시지는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학문의 영역에서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개념은 근대 이후 과학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합리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이몬(Simon)은 의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코 합리적일 수 없는 상황, 즉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성을 제한적으로만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변하는 상황은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보처리의 속도와 질이 떨어져 합리성을 견지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이 어렵다. 특히 여러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돌아가는 집단의 결정 상황에서는, 각자의 선호와 관점이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 결정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해석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완벽해 불확실성과 애매성이 제거되었다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딜레마 이론을 그 이전의 다른 의사결정 이론들과 구분한다. 다른 이론들과 달리 딜레마 이론은 정보와 지식이 완벽해도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의 특징이 결정을 내리기 힘들게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구조적 특성은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할 때, 두 개의 대안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며, 그 중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기도 곤란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윤건수, 2006: 73). 충돌하는 두 개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면에 두 개의 보호된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동환, 2002). 딜레마 이론의 출발을 알린 첫 논문에서는 딜레마를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이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한 가치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가치가 가져 올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종범 외, 1991: 4)이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와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최종 후보로 등장한 두 대안이 서로 분절적이며(discreteness: 두 대안을 연속적인 척도 위에서 비교할 수 없음), 상충적이고(trade-off: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함), 균등하며(equality: 두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치의 크기가 동일함), 선택의 불가피성(unavoidability: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다(소영진, 1999: 187).

정책과 행정 현상에 딜레마 이론을 적용해나가는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딜레마가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선택과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예컨대 행정쇄신위원회라는 조직의 구조와 전략은 개혁이 가져오는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며(이종범, 1999). 노동위원회등과 같은 분쟁조정조직의 제도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장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축되었다는 분석이 이루어졌다(이종범·윤견수, 2000).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한 사회의 절차적 합리성과 연관된 제도는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종범, 2005). 노사정위원회처럼 합의를 강조하는 조직의 제도에는,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행위자들의 상황에 대한 상충적인 해석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하민철·윤견수, 2004).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관심은 2007년 2학기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딜레마 연구진들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하는 한학기의 공동강의로 이어졌고, 마침내 딜레마 연구가 시작된지 20년이 되는 시기에 세 번째 연구서인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소영진 외)”가 2009년 발간되었다.

딜레마에 대한 반응의 과정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명제처럼 딜레마 연구진의 경험연구를 대변한다. 그리고 이것은 딜레마 이론이 학문적으로 제도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부분이기도 하다. 제도의 형성과 딜레마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예를 들어 제도의 형성으로 인해 딜레마가 나타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는 변한다(김태은, 2009). 딜레마 상황에서 제도를 없애거나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정은 하되 집행은 형식적으로만 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소영진·안성민, 2011). 딜레마의 강도가 작은 상황에서는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강도가 커져 더 이상 피하지 못할 정도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결정은 하되 파급효과를 줄이는 방식을 거치면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김태은·윤견수, 2011).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딜레마 이론이 의사결정이론에 기여한 것에 못지않게 제도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것들이다.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기존의 제도이론들이 설명한 것과는 다른 관점, 즉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의 과정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딜레마 연구의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학계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수용되어가고 있었지만, 30여년의 연구기간 중 최근 10년은 연구의 확산에 비해 이론적 성과는 크지 않은 시기였다. 딜레마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은 있었다. 예를 들어 소영진(2015:23)은 “딜레마 이론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많은 난

제들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이론의 전체적인 틀은 파편화되어 그 난잡함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윤건수(2014)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딜레마로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맥락(상황)들 간의 충돌이 곧 딜레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딜레마 연구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의사결정자를 딜레마 모형에 포함시켜 공직자들이 처한 결정의 어려움을 맥락의 충돌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윤건수, 2017).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딜레마 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할만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오랫동안 많은 연구진들의 고민과 토론을 거치면서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개발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론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그동안 개발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현실적으로 유용한 연구들을 축적해나가는 시기가 되었다(소영진, 2015). 딜레마 이론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지만, 행정학의 중요한 개념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딜레마 이론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행정학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딜레마 프레임에 빠지지 않거나 딜레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 형성이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종범, 2018). 그러한 조건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딜레마 이론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정부학 연구의 ‘딜레마 연구 30주년 기념 특집’으로 기획한 6편의 논문들 안에는 연구진들의 그런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약 2년간의 연구모임을 거쳐 논문을 준비하면서 연구진들이 암묵적으로 세운 몇가지 원칙들이 있었다. 첫째는 이론적 관점에서 그동안의 딜레마 연구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과는 다른 가급적 새로운 논의들을 이끌어 낼 것, 셋째는 기획특집 연구들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연결고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학술회의를 통해 검증받으면서 논문으로 완성시켜나가는 것이다.

첫째 논문인 “행정이론으로서 딜레마 이론: 체계적 평가와 고찰(김태은)”은 그동안 축적되었던 딜레마 연구의 성과들을 딜레마 연구진의 관점에서 요약하고 평가하는 논문이다. 저자는 47명의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59편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딜레마 이론의 이론적 가치를 한마디로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선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저자는 이론이 개발된 후 단순히 이론을 적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기존 이론을 보완하고 정교화하며 동시에 다른 이론들과의 연계와 확장이 이루어졌

기 때문에 이론개발모델로서의 설명력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딜레마 이론은 원래 다양한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행정학의 학문적 속성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연구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주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이해하는데 치우쳐 있는 연구 경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한다.

둘째 논문인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소영진·안성민)”는 기존의 딜레마 연구들이 주로 결정자가 자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치중해 왔다는 점을 비판한다. 딜레마 이론이 정책결정 이론의 하나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딜레마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결정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라는 사실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규범적 관점에서의 관심은 적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딜레마가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딜레마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저자들이 제시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3가지다. 첫째는 상황이 딜레마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들, 둘째는 대안이 분절적이라는 인식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 셋째는 결과값의 상충성이 만들어지는 조건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세가지 방안들은 그동안 딜레마 연구를 통해 축적되어 왔던 다양한 대응방식들을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셋째 논문인 “결정의 엇센스, 제4시간: 딜레마 관점에서 본 쿠바 미사일 위기(이영철)”은 기존의 딜레마 연구가 딜레마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행태에 대한 사례 연구에 치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딜레마 이론의 강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데 착안하여, 딜레마 이론을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론 가운데 하나인 엘리슨(Allison)의 모형 가운데 하나인 합리모형과 비교하고 있다. 저자는 엘리슨이 분석한 쿠바미사일 위기가 닦혔을 때의 정책결정 상황을 딜레마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당시 케네디(Kennedy) 대통령이 봉쇄-협상안 대신 선택한 봉쇄-최후통첩안은 당장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미래의 더욱 큰 전쟁 가능성을 막는 방안이라고 해석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그것은 외교적 압박과 협상안에 포함된 불리함을 수용하지 않은 방안이며, 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에 의한 끔찍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은 방안인 것이다. 기존의 주류 이론을 딜레마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기존의 주류이론과 비교한 저자의 시도는 딜레마 이론의 확산과 국제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

넷째 논문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딜레마: 한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김다은·윤건수)”는 딜레마 연구에서 그동안 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딜레마 모형’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다. 딜레마 모형은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대안, 가치, 행위자 등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딜레마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의 존재 이외에도 두 개의 대안이 충돌하고, 그 대안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들이 충돌하며, 그러한 대안과 가치를 주장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어야 한다(이종범외, 1991: 31-35).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의사결정자를 둘러싸고 두 개의 맥락 혹은 두 개의 담론체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윤건수, 2014: 515-516; 하민철·윤건수, 2004). 맥락의 충돌은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상반된 범주의 충돌이나 프레임의 충돌을 의미한다(윤건수, 1993; 서준경, 2008). 저자들은 프레임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 딜레마 모형을 프레임 결합과 프레임 충돌의 개념으로 재구성 한다. 그리고 규제와 혁신이라는 행정학의 핵심 사례를 활용해 딜레마를 무시하는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무시된 딜레마는 ‘프레임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프레임 충돌이 임계점을 넘지 않아서 딜레마에 대한 신호가 제대로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상황은 딜레마인데 그것을 무시하면 정책이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딜레마가 보내오는 신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논문은 강조한다.

다섯 번째 논문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김동환·조수민)”은 딜레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응과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의 혼합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석한 논문이다. 저자들은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동안의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례처럼 시간적 급박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적 대응의 필요성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존한다. 저자들은 ‘표준(standard)’의 설정을 통한 대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표준은 ‘마스크 규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다. 상황이 급변하며 전개되는 민감한 딜레마 상황에서 ‘표준’은 장기적으로는 제도설계의 한 과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기능을 한다.

여섯 번째 논문인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기회손실, 지역 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김창수)”은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환경관련 문제

를 ‘딜레마의 대응방식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저자는 영풍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면 제련소에 의존하고 있는 봉화군과 태백시 그리고 경상북도에 미치는 고용등의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고, 영풍제련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낙동강 본류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1,300만 이상의 유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이라고 봤다. 더구나 과거에는 딜레마를 무시해도 될만큼 소극적인 대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정권 역시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게 클 경우, 비록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 지라도 딜레마에 대한 대응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문은 강조한다. 저자는 당분간은 딜레마가 없는 것처럼 무시된 상태에서 영풍제련소가 시설개선이라는 형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섯편의 논문 안에는 그동안의 딜레마 연구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필자들의 고민이 담겨있다. 이러한 고민과 사색이 딜레마 연구의 지평을 늘리는 계기가 되려면 방법론을 다양화하고 경험자료를 축적해나가면서 딜레마 이론이 실제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30년간 이어져온 딜레마 연구가 발전적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건수

■ 참고문헌

- 김동환. 2002.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 《한국정책학회보》, 11(1): 27-53.
- _____. 1994.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딜레마.” 이종범 외,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135-153. 서울: 나남출판.
- 김태은. 2009.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4): 179-208.
- _____. 2013. “무시된 딜레마의 사회적 비용 발생원인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2(3): 103-136.
- _____. 2007. “정책딜레마 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119-152.
- 김태은·윤건수. 2011.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한국정책학회보》, 20(4): 67-104.
- 박통희·김동환. “딜레마와 형식주의.” 《한국정책학회보》, 17(2): 119-149.
- 서준경. 2008. “정책딜레마의 사회적 구성: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119-148.
- 소영진. 1999.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 185-205.
- _____. 2015.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논집》, 27(1): 23-45.
- 소영진·안성민. 2011. “형식주의의 재해석: 딜레마 측면에서.” 《한국행정학보》, 45(3): 73-95.
- 소영진 외. 2009.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서울: 나남.
- 염재호·박국흠. 1992. “정책의 비일관성과 딜레마: 제6공화국의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5(4): 33-44.
- 윤건수. 2006. “정부의 결정을 딜레마 상황으로 가게 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5(1): 71-100.
- _____. 2014.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Deborah H. Stone 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503-526.
- _____. 2017. “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정부학연구》, 23(3): 1-35.
- _____. 1993. “조직의 딜레마에 대한 상징적 반응.” 《한국행정학보》, 26(4): 1257-1280.
- 윤건수 외. 2000. 《딜레마와 행정》. 서울: 나남.
- 이종범. 1999. “개혁딜레마와 조직의 제도적 대응-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화 규칙과 전

- 략.” 《정부학연구》, 5(1): 185-227.
- _____. 2005.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행정논총》, 43(4): 1-27.
- _____. 2008. “형식주의의 재음미: 딜레마와 상징적 형식주의.” 《정부학연구》, 14(3): 5-34.
- _____. 2018.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학의 과제: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52(4): 3-24.
- _____. 2021. “행정이론으로서 딜레마 이론의 가치와 한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토론
- 이종범 · 안문석 · 이정준 · 윤건수. 1991.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보》, 25(4): 3-22.
- 이종범 · 윤건수. 2000.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해결장치의 연구: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3): 149-171.
- 이종범 외. 1994.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서울:나남
- 하민철 · 윤건수. 2004.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 노사정 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4): 63-84.

